

日, 초저금리 정책 출구전략 시동

일본은행 장기금리 상한 올려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초저금리 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일본이 그동안 고수해온 통화완화 정책을 기습적으로 수정한 이후 시장 반응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BOJ는 그동안 10년물 국제 금리가 0.25%를 넘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오다가 전날 10년물 국제 금리 상한선을 기존의 2배인 0.5%로 올렸다.

BOJ는 이번 조치가 통화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실제 이번 조치의 성격이 어떠한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향후 몇 달간 전 세계 시장의 균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UBS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다치 마사미치

는 "BOJ가 뭐라고 부르든 이는 (초저금리 정책의) 출구를 향한 조치"라면서 "(내년 4월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퇴임 이후) 신임 지도부 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노무라증권 수석 전략가인 마쓰자와 나카는 장기채 금리 하향 폭 확대가 BOJ의 정책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통화완화 정책은 사실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전날 정책 발표 직전에 137.45엔을 찍었다가 이날 새벽 2시 6분께 130.65엔까지 하락, 24시간도 안 돼 환율이 5% 가까이 급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12시 20분 기준 132.11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엔화까지 강세에 엔화-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DXY)도 전날 한때 103.777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시간 104.09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금융기업 소시에테제네랄의 수석 환율 전략가인 키트 주크스는 시장이 BOJ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자세에 대응해감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12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0.25%였던 일본의 10년물 국제금리도 전날 상한선 확대에 장중 2015년 이후 최고치인 0.46%까지 치솟았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는

전날 2.46%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0.22% 하락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자산시장 변동은 초저금리 정책의 정상화가 얼마나 어려울지 보여준다면서, 차기 BOJ 총재가 실수할 경우 여파가 세계 시장에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일본의 정책 전환으로 엔화 선호가 높아질 경우 달러 자산 매각을 촉발할 수 있고, 일본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주식 등 해외자산을 대대적으로 팔아치우는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저금리를 지속해온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글로벌 금융자산에 투자해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 금리 상승으로 급속히 청산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규모는 3조달러(약 3855조원)를 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에 투자돼 있다. 일본의 해외자산 처분 시 네덜란드·호주·프랑스 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일본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60%를 넘기는 등 일본 사회가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혼란과 일본 국제 보유에 따른 잠재적 손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멕시코 국경도시에 설치된 이주자 텐트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국경도시 브라운스빌과 맞닿은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르스의 한 거리에 이주자들이 설치한 텐트들이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미국 워싱턴 방문 바이든과 회동 '깜짝 카드' 주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해 2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래 진지를 떠나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쓴 외국행 강행인 만큼, 방미 기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회담 등을 통해 내놓을 깜짝 카드가 있을지, 그의 이번 방미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새 국면을 여는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정상인 젤렌스키 방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발발 이래 10개월만에 중대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사이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저항의 국제적 상징으로 부상, 지난해 대부분의 시간을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할애했다고 보도했다.

일단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입장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일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 세력이다.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는 지금까지 지속된 미국의 전폭적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간선거를 계기로 내년 1월 3일에 임기가 시작될 제118대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예정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아르헨, 400만 우승 퍼레이드...선수들 헬기 타고 탈출

안전사고 18명 부상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금의환향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몰려든 구름 인파에 예정된 카퍼레이드를 중단, 헬기를 갈아타고 행사를 마쳤다.

퍼레이드의 최종 목적지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 주변에서 대표팀 선수들을 기다리던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AFP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서 우승 기념 축하 카퍼레이드를 시작하고서 5시간 가까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선수들을 보려는 팬들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대표팀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도심까지 30km 정도 이어진 대표팀의 카퍼레이드 경로에 4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행사 과정에서 18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고가다리 위에서 지붕을 제거한 선수단의 퍼레이드용 차량으로 2명이 잇따라 뛰어내리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1명은 버스 위에 안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20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기념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퍼레이드를 진행하던 중 인파가 몰려 이동이 어려워지자 대표팀 선수들은 육로 퍼레이드를 중단하고 헬리콥터를 올랐다. /연합뉴스

착했지만, 나머지 1명은 버스를 놓치고 버스 뒤 도로 위로 떨어졌다. BBC는 오벨리스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자시 기자가 환영 인파 속에 강도 피해를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당국은 급히 모든 일정을 변경했고, 선수들은 버스에서 내려 헬기로 갈아타고 오벨리스크 상공을 지나는 '공중 퍼레이드'를 한 뒤 행사를 마쳐야 했다. /연합뉴스

테슬라 주가 2년새 최저치 '끝없는 추락'

머스크는 복귀 요구 투자자 조롱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몰두하는 새 테슬라 주가가 추락을 지속, 2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리더십과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머스크가 불만을 토로하는 유명 테슬라 투자자를 조롱하는 등 투자자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거버가와사키 창업자이자 테슬라의 장기투자자인 로스 거버가 트위터에서 테슬라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자 머스크가 이를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다.

거버는 트위터로 "지금 테슬라 주가는 CEO의 부재에 따른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에 머스크 복귀 계획이나 CEO 승계 계획, 언론홍보팀이 필요하며, 회사가 머스크의 주식 매각에 대해 (투자자와)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머스크는 "집에 가서 오래된 증권분석 기초 교과서나 읽어보라"고 비꼬았다.

거버는 앞서 지난 16일 테슬라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테슬라의 최대 개인투자자인 리오 쿠크안 등 다른 투자자들도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 투자자는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머스크의 경영 능력에 열렬한 찬사를 보냈던 '머스크 팬'들이었으나, 이제는 머스크와 불협화음을 빚어내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도 애플리스트들이 머스크의 '트위터 울인'을 우려하면서 잇따라 목표주가를 낮춘 가운데 8.1% 급락, 2년 새 최저인 137.80달러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